



포토리아 텐콜렉션 시즌 3 한국작가 김미경 작품 11월 10일 공개

포토리아의 텐콜렉션 데이는 매 홀수달의 10일로, 해당 월의 텐콜렉션용으로 촬영된 메인 사진 및 텐콜렉션 콜라보레이션 그래픽 작품이 PSD 원본 소스 파일로 공개, 무료로 배포된다. 또한 아티스트 소개와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튜토리얼 비디오가 같이 무료 공개되므로, 사진 촬영 노하우와 디지털 그래픽 노하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료제공 | 포토리아

12~30일 사진 및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11월의 텐콜렉션 데이는 11월 10일 단 1일(오전 10시부터 24시간)이며, 포토그래피와 디지털 그래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텐콜렉션 웹사이트(www.tenbyfotolia.com)에서 11월의 텐콜렉션 아트웍 작품을 모든 구성 요소, 레이어, 효과가 포함된 PSD 원본 소스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작가가 텐콜렉션을 위해 촬영한 메인 사진이 특별히 무료로 같이 배포된다.

아울러 텐콜렉션 사진 콘테스트 & 그래픽 디자인 콘테스트가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개

최된다. 참가 제한은 없으며, 사진 콘테스트는 해당 월의 텐콜렉션 사진작가의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그래픽 디자인 콘테스트는 해당 월의 테마로 근사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텐콜렉션 아티스트에 의해 사용된 이미지가 제공되며, 그중 3장이 최종 작품에 포함돼야 한다.

고대 무릉도원의 미래 파라다이스

11월의 텐콜렉션 작품은 'The Future Sangri-LA'다. 고대의 풍요로운 낙원을 상징하던 무릉

도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 잘 보전된 자연,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없이 풍요, 생명력, 장수로 가득한 그곳이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는 우리가 갈구하는 미래의 파라다이스다. 본 작품은 11월 10일 텐콜렉션 웹사이트에서 김미경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과 디자이너 켄이치로 토미야수의 디지털 그래픽 작품으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작품에 사용된 모든 구성요소, 효과, 레이어가 포함된 원본 PSD 파일과 튜토리얼 비디오를 통해 작업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자연의 넉넉한 감성을 지닌 김미경 작가는 사람 사는 이야기와 자연이 들려주는 지혜를 담고 싶어 사진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사진기자 겸 공연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훌쩍 영국으로 건너가 더 넓은 세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2008년 사진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등 대학교와 세기P&C 사진 아카데미, 갤러리 두루, 온라인 갤러리 등 사진 아카데미 과정에서 후배 양성에 힘쓰며, 법무부 소속 서울 소년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 '휴' 채널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진 촬영방법을 소개한 <오! 마이 베이비>, <기차타고 떠나는 낭만여행>이 있으며, 2014년 <제주낭만 여행(가제)>이 출간될 예정이다.

작업 스타일은?

고정된 스타일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주제로 작업을 하는 편이다. 작품의 주제에 따라, 스튜디오를 세팅하기도 하고, 자연 풍경을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기도 하고, 영상작업을 하기도 한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운이 좋게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언제나 사진 작업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어린 시절 바다(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잠재의식 속에서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작품에 물이 자주 등장한다.

본인만의 테크닉이 있다면?

대부분의 작업이 자연에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 작업들은 바다, 숲 등 한국의 자연에서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 테크닉보다 촬영하려고 하는 장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자연은 계절, 날씨, 같은 날에도 시간에 따라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에 따라 촬영일과 시간을 정한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현대사회는 매우 바쁜 사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한다. 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사진작가로서 사운드디자이너와의 공동작업은 어떠했나?

자연을 촬영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자연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자연까지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곤 한다. 그래서 사운드디자이너와 함께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작품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입혀 영상작업을 완성한다. 사운드 디자이너와의 작업은 자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단순히 아름다운 정지된 장면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 이야기가 있는 자연을 조금씩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됐고, 작품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좋은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행과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작품은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마련인데, 좋은 아이디어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하나가 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

